

큰 틀의 PLAN을 세웠으니 작은 틀의 PLAN들을 세워볼까요?

팀 C 회사

우리가 만든 Trello board에 card를 본격적으로 넣어볼까요?!

프로젝트의 목적과 목차 구성을 매칭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볼까요?

마크다운 툴 혹시 어떤 것을 쓰시나요?!

세 줄 요약

---

## 큰 틀의 PLAN을 세웠으니 작은 틀의 PLAN들을 세워볼까요?

---

프로젝트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만들고자 작성하였습니다.

안녕하세요. '현재'입니다.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셨나요? 저는 오늘 코드스테이츠, 제로베이스 스쿨 등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직무 관련 부트 캠프를 알아보고 그 중 커리큘럼과 FAQ가 마음에 드는 한 곳을 입과 신청을 했습니다. 😊

그리고 요즘 하루종일 앉아서 컴퓨터만 하다보니 고관절이 아프더라구요. 그래서 침 맞으러 한의원을 갔습니다. 몸 조심 하세요 🏥

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을 하셨나요? 직장에서 흥미로운 에피소드 같은게 있었나요?!

본론으로 넘어가서 어제 우리가 상의 했었던 것을 상기시키고, 굳이 작은 프로젝트에 왜 이러한 팀 관련 툴들을 굳이 사용해야 할까? 라는 의문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까? 것을 해결하고자 저의 생각을 내비치기 위해 한번 글을 또 작성해보았습니다.

---

## 팀 C 회사

---

인프런 정보 공유자님들 중 유명하신 생활코딩의 Egoing Lee, 보안 프로젝트의 조정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. 코딩 역량이 10점 만점 중 9인 인재보다 코딩 역량 3점 팀 커뮤니케이션 9점인 인재를 뽑는다. 이 얘기는 이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씩 들어봤을거예요. 이미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팀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건 저보다 더 잘 아실거구요.

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라도 약간은 부담스럽지만 협업 툴을 사용하여 팀을 기반하여 수행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팀원 분들의 협업 툴 관련 사항을 조사했고, 공통적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SLACK과 애자일 기반으로 간단한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를 처리할 수 있는 Trello가 맞는 것 같아 어제 Trello에 워크 스페이스와 두개의 보드를 만들었습니다. 🐼

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는 협업 툴은 Slack, Trello가 되겠네요! (향후 포트폴리오를 Notion 기반으로 작성하므로 Notion 으로도 협업을 하는 것도 좋겠어요.)

참고로 각 팀원 분들의 협업 툴과 향후 포트폴리오를 테이블로 대충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군요!

이름	협업 툴	포트폴리오
전님	Slack, Jira, Trello	Notion
라니님	Slack, Notion, Trello	Notion, velog
또치님	Github, Slack	Notion
나	Github, Slack, Trello	Tistory Blog, Github

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를 무시한 테이블이지만 데이터가 적으니 괜찮아보일거라 믿습니다. 😊

## 우리가 만든 Trello board에 card를 본격적으로 넣어볼까요?!

저 개인적으로 어떠한 card를 넣을까?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['입문반 프로젝트 템플릿'](#)에 있는 목표 및 목차 항목 외에 더 넣어야 할 항목이 있을까?, 'US-E-Commerce Records 2020' 데이터 셋 말고 다른 데이터 셋으로 수행해서 스케일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해볼까? 도 생각했습니다.

하지만 결론적으로 '데이터 리안 측에서 제공해주신 데이터 셋은 E-commerce 회사에 자주 보이는 데이터 셋일 것이며 이는 곧 현업에서 자주 보이는 기본이 되는 데이터 셋'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

**기본에 충실해집시다.**

우리가 수업을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한 것에 대한 기반 지식은 바로 이 'US-E-Commerce Records 2020'이며, 해당 데이터 셋 말고 뜬금없이 다른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수행한다면 오히려 금방 지치고 힘들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

'입문 프로젝트 템플릿'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항목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3년차 이상의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제공해주신 프로젝트 템플릿에 충실해집시다. 프로젝트 템플릿에 있는 항목을 모두 수행한 후 추가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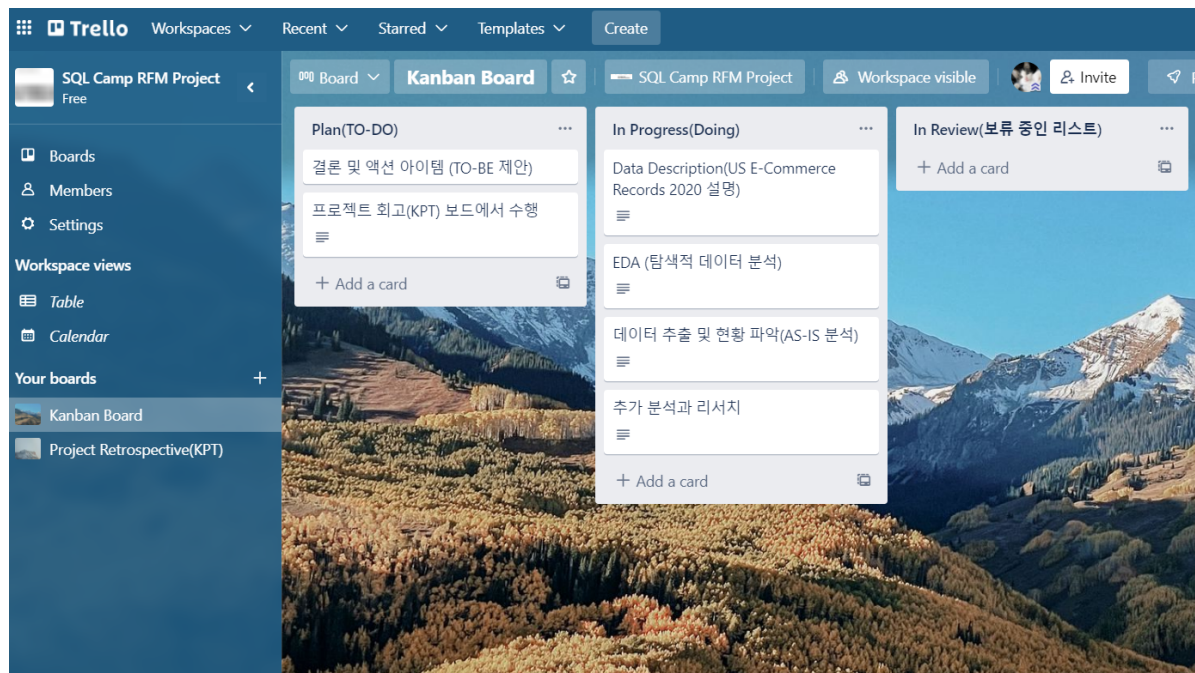
그래서 일단 저는 아래에 있는 **프로젝트 템플릿 목차 구성**을 기반으로 Trello Kanban Board의 카드들을 적어보았습니다.

## 프로젝트의 목적

- 1. RFM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서비스의 현황(AS-IS) 파악하기
- 2. RFM 수치를 이용하여 유저군을 분류하고 어느 유저군에게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(TO-BE) 제안하기.
- 3. 관심있는 서비스에 대해 분석 기획하고 분석 시나리오 그리기

## 추천하는 목차 구성

- 데이터 설명
- EDA (탐색적 데이터 분석)
- 데이터 추출 및 현황 파악 (AS-IS 분석)
- 추가 분석과 리서치
- 결론과 액션 아이템 (TO-BE 제안)
- (옵션) 내가 만약 ( )의 분석가라면
- 프로젝트 회고



<https://trello.com/b/ojyXeVLD/kanban-board>

**프로젝트의 목적과 목차 구성을 매칭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볼까요?**

# 추천하는 목차 구성



- 데이터 설명
- EDA (탐색적 데이터 분석)
- 데이터 추출 및 현황 파악 (AS-IS 분석)
- 추가 분석과 리서치
- 결론과 액션 아이템 (TO-BE 제안)
- (옵션) 내가 만약 ( )의 분석가라면
- 프로젝트 회고

프로젝트 목적 1번 항목에 해당하는 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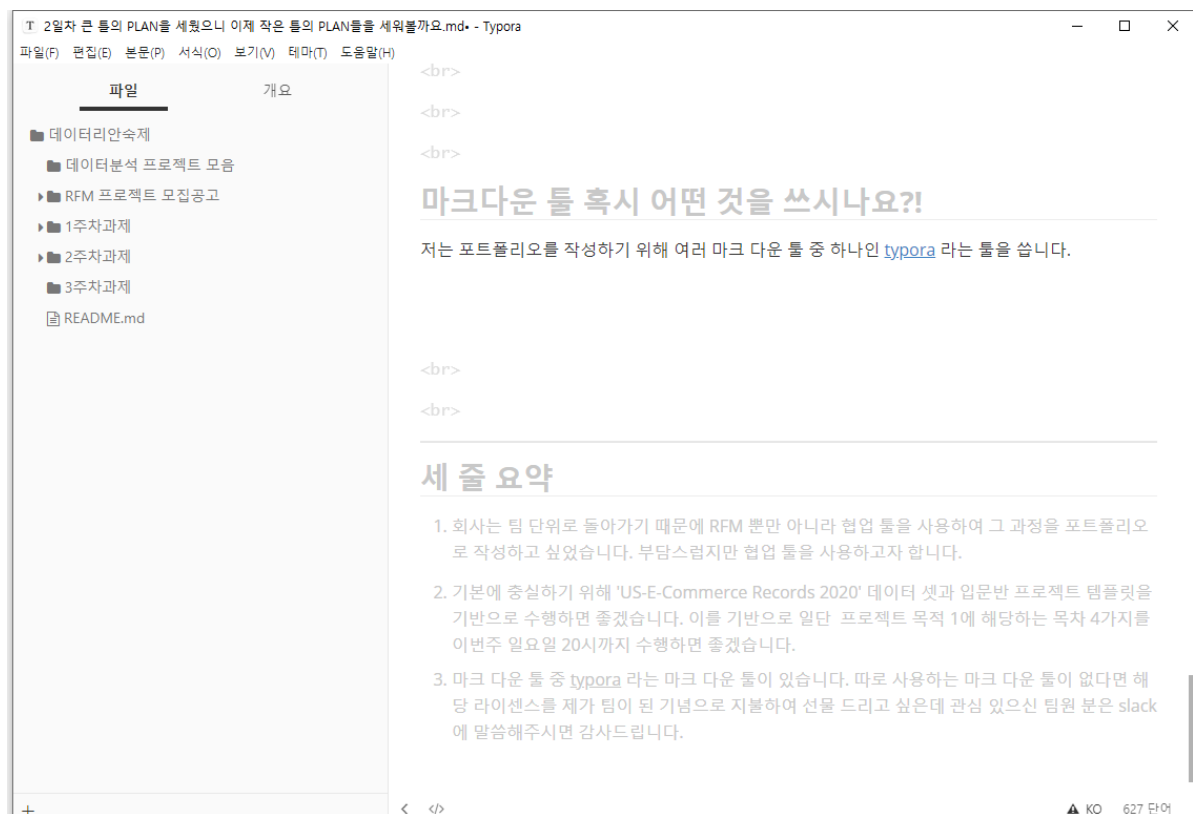
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주 일요일 20시에 목적 1번(RFM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서비스의 현황(AS-IS) 파악하기) 항목에 해당하는 목차 구성,

- 데이터 설명
- EDA(탐색적 데이터 분석)
- 데이터 추출 및 현황 파악(AS-IS)
- 추가 분석과 리서치

까지 정리하여 각자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? 아니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해당 과정을 수행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다. 라는 정도로 slack에 남기는건 어떨까요? 여러분 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

## 마크다운 툴 혹시 어떤 것을 쓰시나요?!

저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마크 다운 툴 중 하나인 [typora](#) 라는 툴을 씁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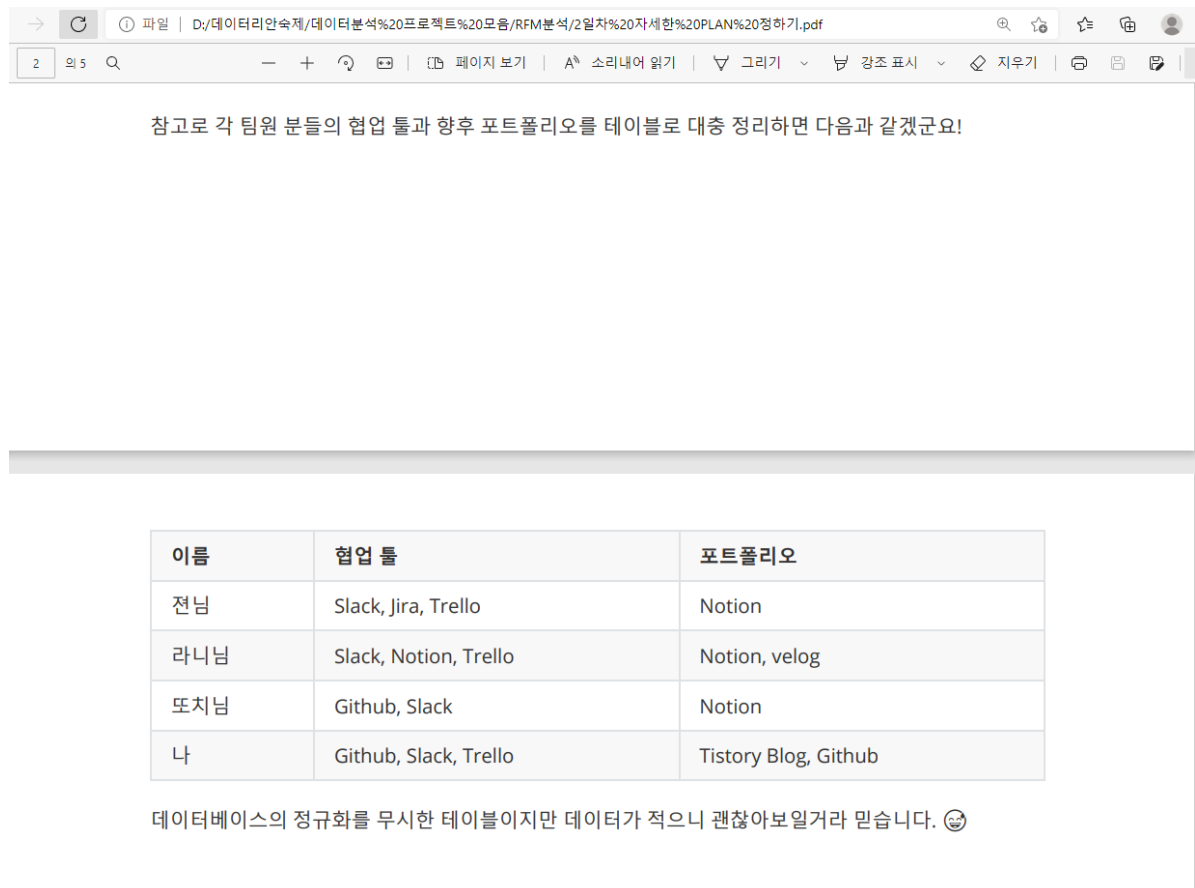
대충 요로코롬 생겼습니다.

## 장점

- 마크다운 문법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단축키나 위에 있는 서식, 보기 같은 콤보 박스를 이용하여 쉽게 마크다운 조작 가능합니다.
- 로컬에 저장하여 문서 관리가 쉽고, 티스토리 같은 플랫폼에 저장되는게 아닌 내 컴퓨터에 글이 저장되어 다른 블로그로의 전환이 쉬워요!

## 단점

- PDF 변환하면 페이지에 적당한 구성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. 아래의 이미지를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...



페이지가 나뉘어져서 같은 공간에 있을 내용이 떨어져서 보여요.

만약에 사용하는 툴이 따로 없으시다면 제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📬

**혹은 나는 이것보다 더 짱인 마크 다운 툴 아는데 이거 한번 사용해볼래?** 라는 툴이 있으면 언제든지 slack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

## 세 줄 요약

1. 회사는 팀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RFM 뿐만 아니라 협업 툴을 사용하여 그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고 싶었습니다. 부담스럽지만 협업 툴을 사용하고자 합니다.

2.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'US-E-Commerce Records 2020' 데이터 셋과 입문반 프로젝트 템플릿을 기반으로 수행하면 좋겠습니다. 이를 기반으로 일단 프로젝트 목적 1에 해당하는 목차 4가지를 이번 주 일요일 20시까지 수행하면 좋겠습니다. (발표는 하고 싶으신 분들만? 하는 걸로)
  
2. 마크 다운 툴 중 [typora](#) 라는 마크 다운 툴이 있습니다. 따로 사용하는 마크 다운 툴이 없다면 해당 라이선스를 제가 팀이 된 기념으로 지불하여 선물 드리고 싶은데 관심 있으신 팀원 분은 slack에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.